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참가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월 27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단위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천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무력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원수님의 사열을 받으며 주체적혁명무력의 사상최고의 열병식을 거행한 무한한 궁지속에 또다시 꿈만같은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크나큰 감격이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끓어넘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열병부대 지휘관, 병사들은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특출한 영도력으로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국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시며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해나가는 희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더쳐올리



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열광적인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백두산혁명강군의 역센 뿌리가 내린

영광스러운 기념일을 성대한 열병식으로 경축하는데 공헌한 전체 열병부대 장병들에게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 《결사옹위》의 열광의 함성이 4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건군사에 특기할 참으로 의의깊고 경이적인 열병식을 통하여 90성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무장으로 굳건히 수호해온 최정예혁명군대의 위용과 공화국무력의 현대성과 영웅성, 비약적인 발전상과 무적의 군사기술적강세를 남김없이 파시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락관을 더 깊이 심어 주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제국주의 폭제를 짓부시는 성전에서 마련된 우리 혁명무력의 백전백승의 전통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영원히 계승하고 빛내어나가야 할 성스러운 혈통이라고 하시면서 전군의 장병들이 진정한 조선의 넘과 기상을 만장약하고 멸적의 힘을 억척만배로 다져주체혁명위업수행을 총대로 더욱 굳건히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승리와 영광이 깃든 군기들을 높이 추켜든 열병부대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과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월 28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자랑찬 혁명강군의 90년력사를 총화하는 장엄한 열병식을 관람하는 영광을 지닌데 이어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게 된 경축행사참가자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더쳐올리며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영도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부흥, 인민의 영원한 안녕을 억척으로 지켜주시는 희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최상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언제나 당의 부름에 충실하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면서 조국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럽고 책임적인 초소와 일터마다에 영예로운 복무의 자욱,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새겨가고있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누리를 진감시킨 무진막강한 공화국무력의 위상과 현대성의 높이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의 자위적국방건설로선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받들어가는 고마운 애국자들, 우리

당이 국가의 초석으로, 대들보로 귀중히 여기는 근로자들의 헌신의 노력이 력력히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우리 인민의 힘과 넋이 깃든 강위력한 최선무기들로 장비한 혁명무력이 있고 조국의 큰 짐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분투하는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경축행사참가자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피와 넋을 이어받은 백두의 후손답게 조선혁명특유의 생명력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

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영예로운 투쟁의 제일기수, 창조와 혁신의 열원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은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을 거둬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위대한 당중앙이 가리킨 승리의 진군로따라 우리 공화국의 힘과 존엄을 더욱 키우고 부흥강국의 미래를 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보다 혁혁한 위훈을 세울길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보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일군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월 27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보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원, 기자, 촬영가, 편집원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혁명적무장력의 력사적인 열병식을 세계민방에 전하는 성스러운 중임을

을 맡겨주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로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고도 그 모든 영예를 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자애로운 어머이에 대한 열화같은 경모심으로 하여 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감격의 눈물속에 환호하는 방송일군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면 열병식보도를 당중앙의 의도대로 최상의 수준

에서 훌륭히 보장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감사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시대 사상혁명의 선봉에서 참신한 변화와 발전을 활기차게 견인해나가야 할 TV방송의 책임적인 력사적임무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최근 사업성과들을 당중앙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일군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 방송의 더 빠른 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당과 국가의 권위와 존엄, 시대의 숨결을 민방에 전해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해나가기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